

만일을 위한 대비책은 충실합니까?



2 쓰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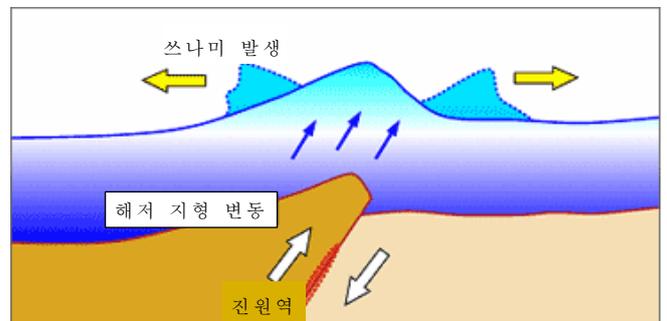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안에서 심한 흔들림이 느껴지면 즉시 고지대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니다. 쓰나미는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1 파가 최대 규모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안에 접근하지 맙시다.

쓰나미는 왜 발생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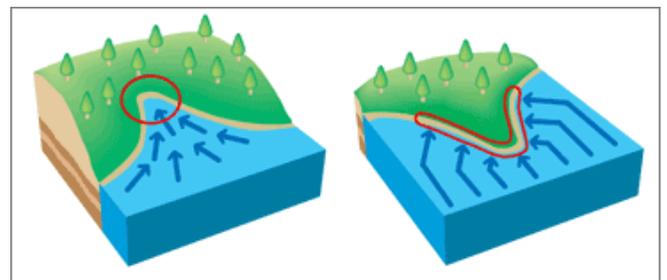
• 쓰나미란?

해저 바닥이 얇은 곳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단층 운동에 의해 해저의 지반이 융기하거나 침강합니다. 이 해저의 변형에 따라 해수가 대규모로 상하 운동하여 해면의 변동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일반적인 파도와 비교하여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잘 감쇠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에 걸쳐서 전해집니다.



또한 쓰나미는 수심이 얇아질수록 속도가 늦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심이 얇아지는 육지 부근에서는 후속의 파도가 앞쪽의 파도를 따라잡아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더욱이 연안의 지형과 구조물에 의해 파도의 반사와 회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쓰나미의 높이가 증폭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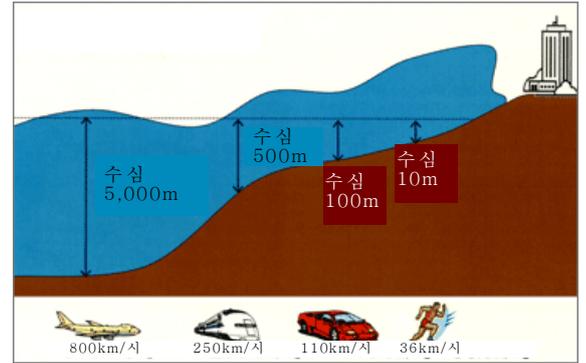
연안에 밀려온 쓰나미는 항만부 등 그 지형에 따라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나미는 해저에서 해면까지의 모든 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라와도 그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건물을 파괴하거나 선박과 바위 등을 육지의 안쪽까지 이동시킵니다.



그 선박 등이 다시 건물을 파괴하기도 하여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가 하천을 역류하여 그 유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쓰나미의 속도

쓰나미가 전파되는 속도는 수심이 깊을 수록 빨라집니다.
쓰나미가 해안에 근접하여 수심이 얕아지면 파도의 속도가 늦어져 후속의 파도가 앞쪽의 파도를 따라잡아 쓰나미는 높아집니다.



쓰나미에 의한 피해

1993 년에 발생한 홋카이도 남서쪽 앞바다 지진에 의한 피해의 최대 원인은 지진 발생 후 단시간에 덮친 쓰나미에 의한 재해였습니다. 진원지와 가까운 오키시리섬에서는 지진 발생 후 얼마 안있어 3m 이상의 쓰나미가 섬 전체 연안의 거의 전역에 밀려들었으며 높이 10m 이상이 되는 지역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재해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재해로는 2003 년의 도카치 앞바다 지진으로 쓰나미가 해안에 밀려들어 도카치항에서 255cm, 다이키초와 앓케시초의해안에서도 4m 를 넘는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도카치강에서는 쓰나미가 11km 나 역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쓰나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쓰나미 대책

● 바다 근처에 있을 경우

바다 근처에서 강한 지진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라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고지대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니다.

● 올바른 정보를 입수

소문이나 유언비어 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고,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안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일반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한 지진(진도 4 정도)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더라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2. 지진을 느끼지 못했어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3. 올바른 정보를 라디오, 텔레비전, 홍보차량 등을 통해 입수한다. 4.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도 해수욕과 바닷가 낚시는 위험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5. 쓰나미는 반복해서 밀려오므로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다.
선박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한 지진(진도 4 정도)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어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즉시 항외로 대피한다(※주 1, ※주 2). 2. 지진을 느끼지 못했어도 쓰나미 경보·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항외로 대피한다(※주 1, ※주 2). 3. 올바른 정보를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 등을 통해 입수한다. 4. 항외로 대피(※주 2)할 수 없는 소형선은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고박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5. 쓰나미는 반복해서 밀려오므로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다. <p>※주 1.항외:수심이 깊고 넓은 해역</p> <p>※주 2.항외 대피, 소형선 고박 등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p>